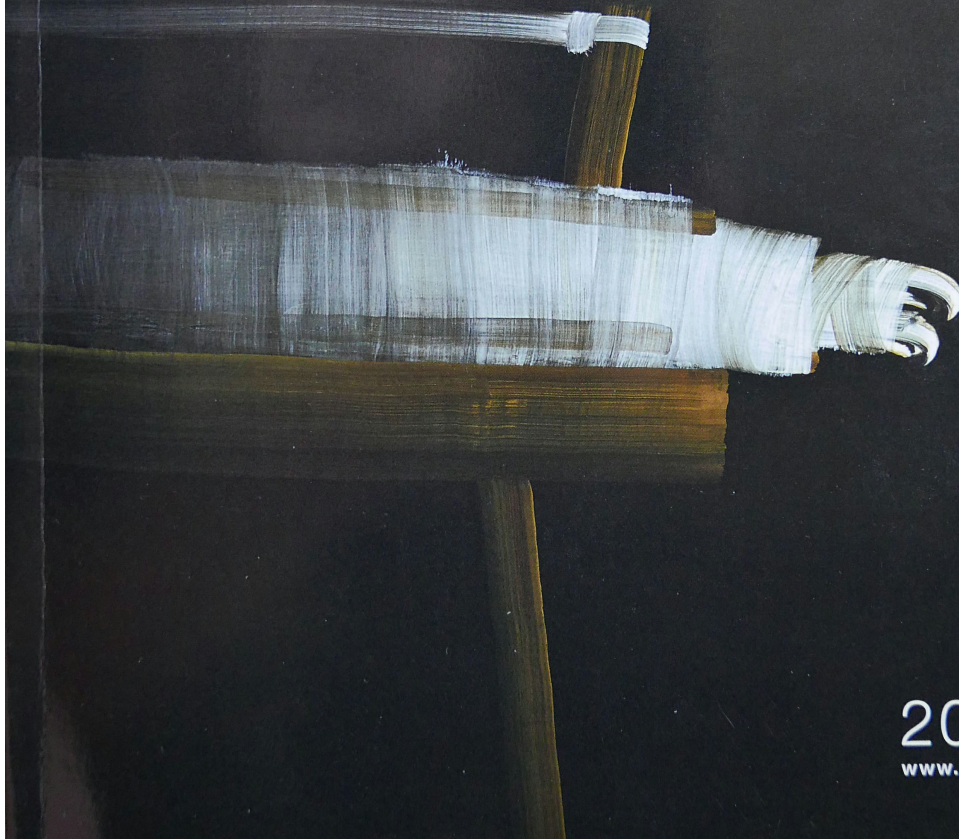


월간미술



2015 01
www.monthlyart.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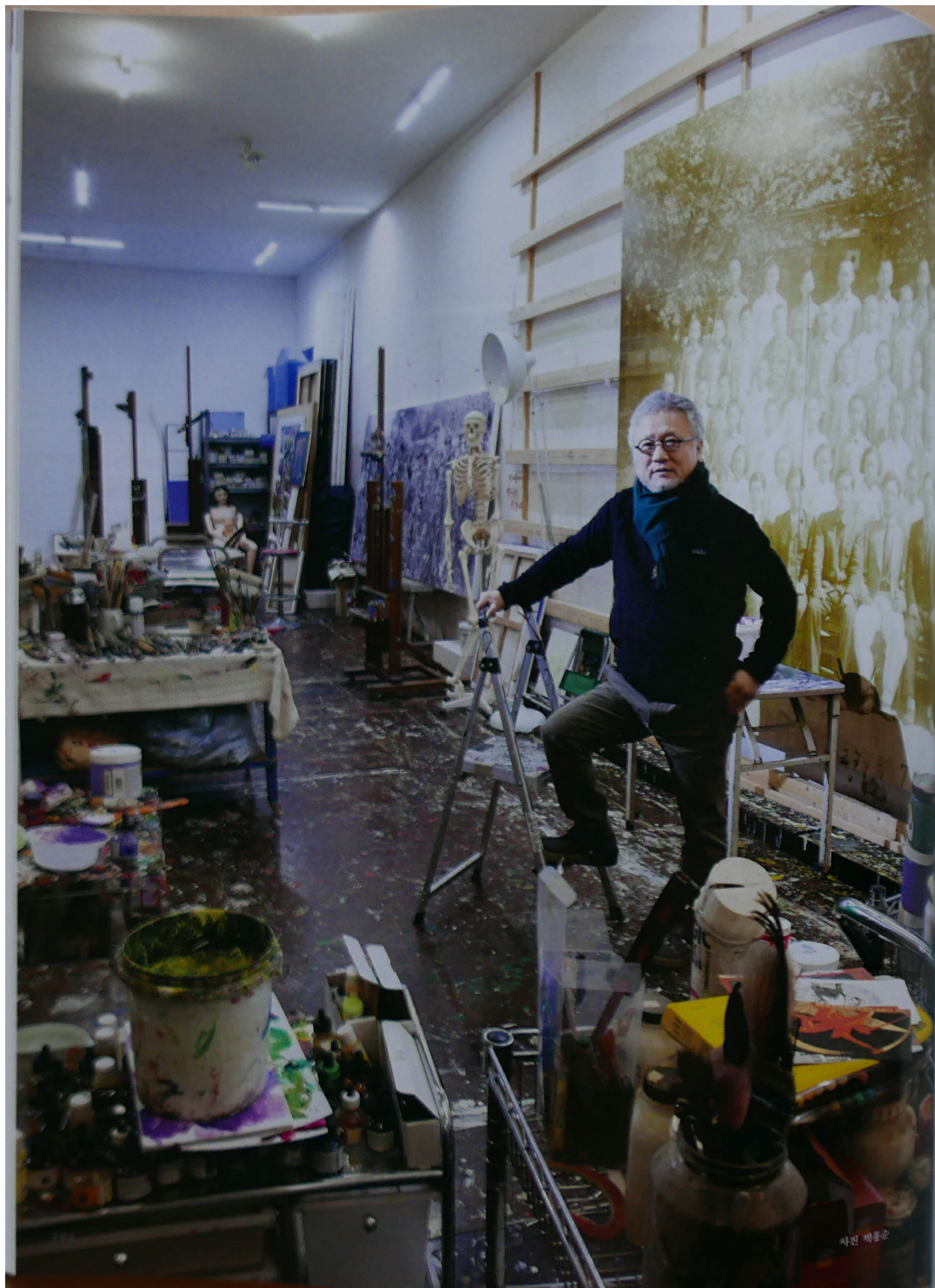


사진 박종준

SPECIAL ARTIST

안창홍

작가 안창홍의 세상을 향한 날카로운 시선과 화면을 압도하는 특유의 회화적 어법은 한국 현대미술에서 각별한 존재감을 드러낸다. 지난 30여 년간 그가 보여준 예술적 성취와 참여한 작가의식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도발적인 인간형상으로 시대정신을 그려왔던 안창홍이 이번에는 꽃을 그렸다. 아름다움을 넘어 기괴하고 처연하게 보이는 꽃은 안창홍의 또 다른 상상풍경이다. 2014년 11월 28일부터 12월 28일까지 더 페이지 갤러리에서 열린 작가의 29번째 개인전 <AT THE GARDEN>을 계기로 그의 작품세계를 탐구한다.



고통으로 기록한 처절한 아름다움

최태만 국민대 교수

안창홍의 작품을 보면서 나는 도록 뒤쪽의 어백에 '맨드라미의 꽃봉오리는 검붉은 물감덩어리이자 것이겨진 옥절이고, 폭발하는 장기'이다라고 적었다. 29번째 개인전 개막을 앞둔 11월 15일 그는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작가노트에서 "내 눈에 의해 관찰된 맨드라미는 느낌! 식물이자기보다는 동물에 가깝다. 마치 정육점 진열장의 붉은 조명등 아래 놓인 살코기 같은 느낌! 꽃의 형태 대부분이 좌우가 비대칭이고 꽤이한 데다 원초적 느낌의 험란하고 강렬한 붉은 빛, 절긴 생명력이 느껴지는 다양한 모양의 억센 줄기와 다양한 색의 잎들, 온 몸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듯이 시들어갈 때의 처연함, 망연자실, 꽃이긴 한데 꽃이 아닌 듯한 느낌"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실제로 그림 속의 꽃들은 싹틔출처럼 엉겨있는 줄기와 가지 위로 솟구치는 에너지가 응고된 곳에서 요염하면서도 강인하게 뿜우리를 피우고 있다. 선명한 원색의 물감덩어리가 도도하게 것이겨진 꽃은 화려하면서 처연하다. 그래서 대저에 낭자하게 뿌려진 선흘빛 피가 그대로 굳어버린 듯한 그의 그림은 처절한 아름다움을 자아내는 것이다. 그의 그림이 불러일으키는 정서적 긴장, 즉 처절한

아름다움은 그가 단지 자연을 재현한 것이 아님을 암시한다. 식물을 동물로, 붉디붉은 빛깔의 꽃을 살코기로 표현한 것은 모두 죽음과 연결된다는 점에서 그의 그림은 죽음의 비유이자 환유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화려하게 만개했지만 웬지 쓸쓸하거나 혹은 아예 시들어 말라버린 안창홍의 꽃밭은 풍경이라기보다 정물에 가깝다. 서구미술에서 정물화는 '여전히 살아있는 still-life'이란 뜻을 지니고 있으나 동시에 '죽은 자연 natura morta'이란 의미도 담고 있다. 특히 17세기 네덜란드에서 발전한 정물화 속의 활짝 핀 꽃은 언젠가는 시들기 마련이고 자신을 태우며 어둠을 밝히는 촛불도 곧 꺼져버릴 운명이며, 투명한 유리잔도 깨질 것이고 거품은 허공으로 사라질 것이므로 부귀영화와 같은 세속적 욕망은 물론이거니와 삶조차 덧없음-vanitas을 상징한다. 대체로 이 그림들은 이러한 대상들을 통해 삶의 허망함을 일깨움으로써 '죽음이 항상 네 옆에 있으니 기억하라 memento-mori'란 교훈을 담고 있다. 프로이트 식으로 말하자면 삶의 욕망eros과 죽음의 충동tanathos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 동전의 양면처럼 한쪽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안창홍도 죽음 자체만을 강조하기 위해 이렇게 동엄한 개화의 절정을 그린 것일까? 이번 전시에서 중심을 이루는 것은 그 길이만 10m가 넘는 세 개의 꽃밭 풍경을 연결한 작품이다. 화려하고 동엄한 빛깔을 자랑하는 다른 그림과 비교해 볼 때 이 작품은 꽃밭에서 일어나는 생명의 생성과 소멸 과정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삶의 순환을 암시한다. 그러나 그 앞에 놓인 보라색의 커다란 두상은 그의 작품이 단지 삶의 덧없음에 대한 경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함의를 지니고 있음을 일깨우고 있다. 그는 이 입체작품의 제목을 사람의 피를 먹고사는 좀비 세상을 다룬 영화제목에서 따와 <눈먼 자들의 도시>라고 붙였다. 물론 전시장이나 도록에서 그 제목을 발견할 수는 없지만 꽃밭으로 둘러싸인 이 보라색 두상은 그의 작품에 담긴 수수께끼와도 같은 의미를 푸는 열쇠구실을 하고 있다.

정물같은 풍경

안창홍은 새로운 작업을 시작할 때마다 어김없이 나를 호출한다. 그럴 때마다 나는 소환장을 받은 사람처럼 그의 작업실로 출두한다. 덕분에 나는 이 꽃밭작업의 시작부터 볼 수 있었다. 그것도 부족하지 내가 작업실을 다녀온 후에도 그는 SNS 문자메시지를 통해 작업과정을

사진과 함께 꼭 보고 한다. 2014년에 보낸 문자를 보자 4월 2일 그는 '안창홍의 정원'이라 이름 붙인 첫 작품을 보내왔다. 그리고 작업에 대한 글보다 한국사회를 고통에 빠뜨린 긴 시간을 보내야만 했다. 그의 문자는 대체로 침묵한 세월호에 대한 경보나 심경을 토로한 짧은 글로 채워졌다. 그리고 한동안 작업에 대해 별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더니 6월 20일에는 210호 크기의 유화 <검은비>를 완성했다고 알렸다. 7월 20일에는 고양의 <1808년 5월 3일>을 생각하며 그린 작품과 함께 풍경과의 오버랩이 쉽지 않다는 글을 보냈으나 7월 30일에는 드디어 이 작품을 완성했음을 알렸다. 그리고 이 작품을 꼭 봐야한다며 작업실 방문을 독촉했다. 그의 출두명령을 받고 간 작업실에서 한 두더기 맨드라미가 뒤엉킨 그 작품을 봤다. 좌우에 평행으로 맨드라미가 두 그루씩 쓰러져 있고 화면의 중심에는 맨드라미 군락이 한 몸처럼 뒤엉켜있는 이 작품은 그 구조에서나 분위기에서 고양의 <1808년 5월 3일>을 떠올리게 했다. 전면으로 돌출된 꽃에 비해 평면으로 처리하여 원근을 파괴한 배경은 작품을 더욱 을깨넌스럽게 만들었다. 훗날 전시를 개막할 즈음 <조선일보>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그는 그것에 대해 '구도의 도발'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의도적인 구도 해체는 안창홍이 정물 같은 풍경을 위한 연출 즉, 연극이나 영화에서 볼 수 있는 미장센mis-en-

왼쪽부터 <가을과 겨울 사이> <개단은 여름> <가을비> 캔버스에 아크릴 136×346cm(각) 2014와 입체작품 <눈먼 자들의 도시>

고양 <1808년 5월 3일>을 떠올리며 그린 <슬픈 여름> 캔버스에 유채 97×194cm 2014





《그림 이동운 '엔드라미' 캔버스에 유채 91×71.5cm 2014



“대지에 낭자하게 뿌려진 선흥빛 피가 그대로 굳어버린 듯한 그의 그림은
 처절한 아름다움을 자아내는 것이다. 그의 그림이 불러일으키는 정서적 긴장,
 즉 처절한 아름다움은 그가 단지 자연을 재현한 것이 아님을 암시한다.” — 최태만



위 《엔드라미 에탄》 캔버스에 유채 114×194cm 2014 아래 《비바람 이후》 캔버스에 유채 114×194cm 2014